

부처님 오신날

불기2545년

"'지구촌 불교'로 거듭나도록 학문적 지원"

특별좌담 불교학이 가야할 길

불교학의 발전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바로 볼 때 가능하다. 불교학의 연구 대상은 불교이지만 구체적인 공간, 즉 사회와 문화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학이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학문으로 불교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학이 가야할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보광스님, 허우성교수, 신규탁교수, 유승무 교수(왼쪽부터).

참석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 선학과)
허우성 교수(경희대 · 철학과)
신규탁 교수(연세대 · 철학과)
사회 :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 포교사회학과)

일시 : 2001년 4월 21일
장소 : 본사 불교사랑방

"응용불교학 21세기 중요역할" 보광 스님
"깨달음의 목표 명확하게 제시" 허우성 교수
"역사 문화 토대 불교학 세우자" 신규탁 교수

사회자 – 서구에서도 불교와 같은 전통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불교학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광 스님 – 우선 우리의 불교학이 제 역할에 충실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불교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학은 수행의 방법과 과정을 추적하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란 바로 불교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불교학과 서양의 불교학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학은 수행자의 본분을 가슴에 안고 깨달음을 향하는 제도적인 방법입니다.

허우성 교수 – 깨달음이란 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생활공동체를 만들며, 그 목표를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연구하는 불교학 역시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가와 재가의 수행이나 신행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중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가 존재해야 하는 명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규탁 교수 –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불교학도 그런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사회 속에 불교는 편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학은, 현대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우리 아닌 다른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21세기를 준비했는가? 등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한자문화권이라는 테두리에서만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세 말 아편전쟁을 계기로 '天下(천하)'에서 'The world(세계)'로 그 체제가 변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 중국의 사유 체계로만 보았던 불교지만, 지금은 서양의 사유 체계와 만나는 과정 속에서 불교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현대사회에서 불교학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주목해야 한다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세계의 불교학의 경향을 점검해 보죠.

보광 스님 – 일본의 불교계는 메이지 유신과 함께 현대적인 교육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그 체제 하에서 교육받은 스님들은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문학 · 사학 · 철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75개의 불교 종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 대학에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택대나 용곡대와 같은 종합대학에서는 불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참다운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 종단에서 불교 인재만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규모 대학에서는 한 차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응용불교학과 같이 현실 사회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규탁 교수 – 불교학은 시대적 측면만 아니라 지역적 측면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선불교는 당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연구 주제는 불교만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허우성 교수 – 글쎄요. 지역성보다는 보편성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89년도에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불교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수강생들은 지역적, 역사적 얘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ㅁ국의 서점가에서 다양한 불교 서적들이 진열되고, 달라이 라마나 틱낙한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보아도, 세계를 보는 눈으로써 불교의 보편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신규탁 교수 – 서양에서 일고 있는 불교에 대한 관심은 불교 자체보다는 자기 문화를 반성하는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불교를 연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그 속에 내재된 중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역사, 문화, 언어를 초월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허우성 교수 – 지역학 역시 중요합니다. 인간 내면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미국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불교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규탁 교수 – 불교의 보편성이란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 지역과 언어가 달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불교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광 스님 – 불교학은 고전문헌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공부할 때 중국불교를 강의하셨던 교수님은 당대의 지도를 펴놓고 강의하셨습니다. 원전만을 보는 것보다 더 알차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 교수님의 지적처럼 지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헌학 중심의 공부에 있어서도 시대와 지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탁 교수 – 역사를 보고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문화는 역동적입니다. 이런 문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불교학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불교학계에 대해 '문헌학 연구가 부족하다', '기초 자료가 부실하다' 등의 비판이 있는데, 이 역시 시대를 간과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성스님의 불교운동은 구국운동 차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분들에 있어서 문헌적인 연구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구에서 문헌학이 일차적인 것은 제국주의 산물로써 불교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헌학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닥친 문제입니다.

사회자 – 시대적 배경을 염두해 두고 불교학을 보아야 한다는 신교수님의 지적입니다. 이제 현재와 미래의 불교학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허우성 교수 – 종합대학이라면 불교 전공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주요 종합대학에서조차 불교 전공자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보광 스님 – 종합대학의 인문대학에 유교나 도교를 전공한 학자는 들어가는 데 불교전공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국문학이나 사학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유교는 종단과 같은 조직도 없는데도 동양철학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거대한 종단이 있는 불교는 없습니다. 교단에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규탁 교수 – 우리 나라는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동양을 지배하고자 했던 서양의 동기와는 달리 순수한 종교성에 따른 것이다. 불교학은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불교의 이상세계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불교학과 수행 즉, 교(敎)와 선

☞ 7면으로 계속

봉축 부처님 오신날

■ 봉축법어

敦頌(염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未離兜率(미리도솔)하고 已降王宮(이강왕궁)하였으며 未出母胎(미출모태)하고 度生已畢(도생이필)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정반왕궁에 下降(하강)하였으며 마야부인의 胎中(태중)에서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一切衆生(일체중생)을 제도해 마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本分(본분) 消息(소식)입니다. 오늘 四月 八日을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에 있어 부처란 도솔천에서 하강하실 수도 없는 것이며 마야부인에게 入胎(입태)니 혹은 出胎(출태)니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 부처 나기 전에 圓相(원상)하나 뚜렷했네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찌 전할소냐" 부처란 그야말로 不生不滅(불생불멸)이오 不垢不淨(불구부정)이오 不增不減(부증불감)인 것입니다. 盛衰(성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뜻으로 볼 때 석가세존의 八相(팔상) 示現(시현)은 중생교화를 위한 權化方便(권화방편)이며 化身現跡(화신현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실히 말하자면 오늘은 인간 석가세존이 사바세계에 降誕(강탄)하신 날입니다. 그럼에도 本分(본분)의 부처는 강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분의 부처란 眞理(진리)이며 마음이며 우주의 힘이기 때문에 生滅(생멸) 遷流(천류)에 물들지 않고 去來(거래) 往復(왕복)에 動搖(동요)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無形無相(무형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奧妙(오묘) 甚深(심심)한 뜻을 體達(체달)하여 우리들의 本來(본래)의 面目(면목)을 바로 찾고 塵累(진루)의 業障(업장)에서 解脫(해탈)하자는 것이 오늘을 맞는 가장 중대한 意義(의의)라 생각합니다.

워대하신 석가세존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皮相的(피상적)인 喜悅(희열)에 陶醉(도취)되어 自家反省(자가반성)이 薄弱(박약)하다거나 본래의 부처님을 忘却(망각)혹은 精進(정진)이 懈怠(해태)되어서는 진정 이 날을 맞는 큰 뜻을 喪失(상실)하게 됩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삼천년전 그 밝고도 슬기로운 눈으로 부처를 보셨는데 우리들은 석가세존께서 부처보는 방법을 자세한 설명과 간절하신 指導(지도)를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부처를 보지 못하고 苦海(고해)의 波浪(파랑)에서 生死出沒(생사출몰)의 고통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어찌 痛憤(통분)과 悔恨(회한)치 않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중생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大原理(대원리)를 생각해 볼 때 다 같은 부처의 자격과 본질을 가지고도 다만 眞如(진여) 法性(법성)을 바로 볼 줄 아는 슬기로운 눈을 가지지 못해 우리들은 한 없는 먼 세월을 業海風浪(업해풍랑)에 시달리고 生死輪廻(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둡고 어리석은 중생의 위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起信論(기신론)에 보면 順流門(순류문)이 있고 反流門(반류문)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류문이란 것은 생사윤회의 고해속에 언제든지 업풍이 부는 대로 둥둥 떠 흘러가는 것을 말한 것이며, 반류문이란 것은 무한한 세월을 生死業海(생사업해)에 漂流(표류)하다가 한 생각 돌이켜 自性(자성)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또 찾으러 발심 분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시 바삐 반류문으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誕身節(탄신절)을 맞음에 있어 등 밝히고 共養(공양) 올리고 노래 부르고 한갖 축제의 틀뜬 기분으로 남의 탄신을 축하하는 행사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이것이 진정 축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삼천년전 석가모니께서는 반류문으로 들어가 벌써 成佛(성불)의 頂上(정상)에 올라 가셨는데, 우리들은 다 같은 資格(자격)과 本質(본질)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순류의 업장에 시달리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大奮心(대분심)을 일으켜 지금 부터라도 석가모니께서 걸던 그 길을 바로 걷고 석가모니께서 시키는 방법대로 修行(수행)과 精進(정진)을 열심히 하여 더러운 중생의 위치에서 깨끗한 부처의 위치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오늘을 맞는 참 뜻이 되는 것이며 廣大無邊(광대무변)한 佛恩(불은)에 萬分(만분)의 一(일)이라도 報答(보답)하는 길이며 또한 참다운 祝賀(축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기 2545년 4월 8일

財團法人 大韓佛敎一鵬禪敎宗 總務院長 東奉 合掌

■ 초대법왕 서경보 일붕존자
■ 제 3대 종정 무찰 김태현 대종사
■ 총무원장 동봉 정대룡 종사
■ 부원장 혜천 최산봉
■ 부원장 용암 최용길
■ 종회의장 정관 이영우
■ 호계원장 지공 엄외출
■ 포교원장 화엄 김광옥
■ 교육원장 법운 이대연
■ 감사원장 대륜 진억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서울시 강북구 수유 5동 440-27호 엄지빌딩 4층
전화 : 02) 998-8161,2 / FAX : 02) 998-8384